

새로운 소득원 약용식물 재배 (I)

임 상 철
상지대학 자원식물학과 교수

1. 약용식물이란?

반경 약 6천 4 백km, 둘레 약 4만km 남
짓한 지구 위에서 인간은 여러가지 문화를
창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를 겪어야만 했던것 같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삼사천년에 신농씨(神農氏) 즉 염제(炎帝)가 신통한 개(犬)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의 맛을 보아가며 약용식물을 찾아보았다고 한다. 그런 그의 연구가 계속 구전(口傳)되어 오다가 서기 452~536년 도홍경(陶弘景)에 의하여 개정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는 365종의 약초를 상·중·하 약으로 구분하여 상약에는 보약류를, 중약에는 보통약을, 하약에는 치료약을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에 환웅천왕(桓雄天王)이 썩과 마늘을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597년 이시진(李時珍)에 의해서 집대성된 「본초강목」(本草綱目)은 본문 52권, 부록 3 권으로 그 규모도 방대하러니와 1,892종의 약물을 16부 62류로 분류하여

8,160개의 처방을 기록하였다. 또한 허준(許浚)이 지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은 한의학 백과사전으로 일본 중국에서도 그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기원전 2,600년 경 식물과 더불어 주문을 외우면서 질병의 악마로부터 환자를 구출하려 하였던 사실들이 진흙 조각에 남긴 기록을 통하여 밝혀졌다. 기원전 2,900~1,900년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약학적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물을 약으로 이용 하려는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왔다. 이들이 약용식물을 추구하던 개념은 표징설(表徵說: Doctrine of Signature)로서 병의 원인이 되는 기관(器官)과 고치고자 하는 약 사이의 피상적인 닮은 점을 찾아서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현대 약학이 본초학(本草學)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하였으며 합성 조제된 양약(洋藥)의 경우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약화(藥禍)와 중독성등의 이유때문에 생약(生藥: crude dru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약으로 쓰기 위하여 그대로 말리거나 간단한 가공처리를 거쳐서 이용부위만을 약품으로 하거나 성분을 추출하는 원료로 이용하는 경

우 이들 천연물을 생약(生藥)이라고 할 때 생약의 원료식물 즉, 치료목적으로 이용되는 식물을 약용식물(藥用植物)이라고 하며 중요한 식물자원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다.

2. 재배현황

약용식물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수록된 것만도 1,800여종이 된다. 이중에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은 약 300여종이며 자생종이 140여종, 재배종이 약 160여종이다. 많이 재배되는 식물은 시호(紫胡), 반하(半夏), 택사(澤瀉), 당귀(當歸), 맥문동(麥門冬), 결명(決明), 울무(薺苢仁), 부자(附子), 허수오(何首烏) 등 약 30여종으로 그 주산지는 표1과 같다.

재배면적은 '87년에 6,869ha로 '82년의 3,677ha보다 약 2배 증가하였고 점차 소득작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중이다(표2).

그러나 약초(건재)의 가격은 그 변화폭이 매우 크며 재배, 수확, 조제, 저장, 판로등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으로는 약용식물을 재배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

첫째, 그 지방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해야 하며 둘째, 시세가 좋은 것만을 택하지 말고 4~5종을 선택하여 가격폭락시에 피해

표 1. 약용식물의 주산지

구	분	주	산	지
澤瀉科	택사(澤瀉)	신안, 승주, 이천, 구례, 영천		
禾本科	율무(意苡仁)	무주, 임실, 포천, 청원, 칠곡		
天南星科	반하(半夏)	금산, 장흥, 제주, 영암		
百合科	패모(貝母)	나주, 해남, 완도		
	백문동(麥門冬)	밀양, 월성, 사천, 부여		
薯蕷科	참마(山藥)	봉화, 안동, 금릉, 인제		
蓼科	하수오(何首烏)	연기, 보성, 화천		
毛茛科	작약(芍藥)	의성, 함천, 단양, 영천, 보성		
	모란(牡丹)	단양, 의성, 영풍, 월성		
	부자(附子)	고령, 대덕, 의성		
木蓮科	오미자(五味子)	무주, 장수, 진안, 순창, 양평, 남제주		
杜仲科	두충(杜仲)	홍천, 제천, 함천, 신안, 청원		
豆科	황기(黃芪)	정선, 단양, 삼척, 제천, 영월, 봉화, 울릉		
	결명(決明)	함천, 강진, 부안		
五加科	독활(獨活)	울릉, 함천		
傘形科	당귀(當歸)	봉화, 울진, 평창, 삼척, 양양, 정선		
	천궁(川芎)	울릉, 봉화, 철원, 울진, 금릉, 함천, 군위		
	강활(羌活)	평창, 함천, 정선		
	시호(紫胡)	봉화, 금릉, 월성, 장수, 단양, 금산, 삼척		
	백지(白芷)	봉화, 함천, 청송, 군위		
四照花科	산수유(山茱萸)	구례, 양평, 의성, 이천, 무주		
脣形科	황금(黃芩)	함천, 봉화, 울릉, 청송, 안동		
玄參科	지황(地黃)	안동, 봉화, 군위, 서천, 청송, 단양		
桔梗科	사삼(沙參)	순창, 금릉, 월성, 장수, 단양, 금산, 삼척		
	도라지(桔梗)	단양, 영풍, 군위, 안동, 순창, 금산, 울진		
	만삼(蔓參)	장수, 무주, 금산		
加子科	구기자(枸杞子)	청양, 진도, 공주, 무주, 영월		

표 2. 재배면적과 생산량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면	적(ha)	3,677	3,882	4,010	4,025	5,640	6,869
생	산량(톤)	7,901	8,988	10,096	12,616	11,853	16,047

*농림수산부 행정통계

를 적게 보고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할것 셋째, 품종고유의 특성을 지닌 우량종묘를 선택하고 파종시기를 엄수하여야 하며 넷째, 수확은 적기에 하는 것이 품질면에서 유리하고 조제는 신중히 기술적으로 해야하며 다섯째, 무엇보다 판로를 확보하여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야 한다.

3. 식물학적 가치

식물자원적 측면에서 약용 식물은 그 가치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국민보건상 질병의 치료제로 혹은 예방제로 활용되므로 사회적 부가가치가 매우 크며, 물질생산면에서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즉, 경제작물(환금작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식물이다.

이들 자생 약용식물은 생태적으로도 우리나라 기상조건과 토양조건에 오랫동안 적응되어 왔기 때문에 생

활력이 매우 강하다. 또한 내병, 내충성이 큰 형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광포화점(光飽和點)이 낮기 때문에 주작(主作)에 혼식하여 재배할 수도 있는 유리한 점이 많다. 또한 시장개방문제와 관련, 생약재의 수입대체작물로의 가치가 크며 더 나아가서는 수출품목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재배면적도 매우 협소하였고 유희농지와 유희노동력을 이용한 재배와 체계화되지 않은 수집이 주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기업화, 단지화에 의한 적극적 활용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경제작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서는 합리적인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시켜 주어야하며 생산성 향상, 약효유용성분의 추출과 이용법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또한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마찬가지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